

통증 어휘에 따른 통증 종류와 강도 간의 관련성

황주성, 전지훈, 이영규, 이충민, 박민지, 김현희
신성대학교 물리치료과

Relationships between Pain Types, Pain Intensity and Terms Used to Describe Pain

Ju-Seong Hwang, Ji-Hoon Jeon, Young-Kyu Lee,
Chung-Min Lee, Min-Ji Park, Hyun-Hee Kim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Shinsung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improve communication of pain expressing terms and pain intensity between patient and physical therapist, and initiated to objectify a measurement of subjective pain. **Methods** : Data were delivered to 249 people by a self-completion questionnaire, and analyzed 160 copies except for 87 mark error of the collected 247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 included a question on 55 terms used to describe pain, the type of the pain, and pain intensity using VAS (visual analogue scale).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ight' was the most frequently being expressed term of muscular pain, subsequently to 'knot' and 'dull'. 'Tear' was the term representing the most strong pain of muscular pain, subsequently to 'rupture' and 'squeeze'. 'Stinging' was the most frequently being expressed term of neurologic pain, subsequently to 'get shocked' and 'wriggle'. 'Burn' was the term representing the most strong pain of neurologic pain, subsequently to 'sear' and 'get shocked'. 'Creak' was the most frequently being expressed term of joint pain, subsequently to 'peel' and 'out of joint'. 'Break' was the term representing the most strong pain of joint pain, subsequently to 'peel' and 'crack'. **Conclusion** : The objectification of pain terms will be used to help physical therapist to check the patient's pain.

Key words : Pain term, Pain type, Pain intensity.

I. 서론

통증은 실질적 혹은 잠재적 조직 손상과 관련하여 표현하는 감각적이며, 정서적인 불쾌한 경험이다(Melzack, 1975). 통증이란 말은 단지 강도만을 나타내는 특수감각이 아니라 단일한 어휘 수준 아래 수 많은 다양한 질의 표현이기도 하다. 더욱이 통증 경험을 묘사하는 매우 많은 말이 있다는 사실은 통증이라는 말이 무수히 많은 사람의 경험에서 나타났다는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Melzack과 Torgerson-ii, 1971). 그러나 통증은 문화의 영향을 받아 통증 지각과 표현이 같은 문화권에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유된 합의를 갖는다(Galloway과 Turner, 1999).

통증은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그리고 정서적 요소를 가지므로 환자마다 손상부위나 정도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을 정확히 기술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렵다(Ho 등, 1996; Lee과 Kim, 2003). 통증 평가를 위한 통증 표현 어휘 분석은 해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질환에 따른 통증 표현 어휘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elsack과 Torgerson(1971)은 여덟 종류의 질환명으로 분류된 9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표현하는 통증 표현 어휘를 조사하였으며, 같은 질환의 77% 환자에서 비슷한 단어를 통한 통증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Melzack과 Torgerson-ii, 1971). Lee 등(1984)은 84명의 환자에게 자신이 느끼는 통증 표현 어휘를 부위별로 구분하였을 때 위장의 통증은 ‘빠근하게 아프다’, ‘우리하게 아프다’, ‘쓰리고 아프다’, 그리고 ‘간죽간죽 아프다’로, 담낭의 통증은 ‘쥐어뜯는 듯이 아프다’와 ‘땅기는 듯이 아프다’로, 췌장의 통증은 ‘에어내는 듯이 아프다’, ‘잘려 나가는 것 같이 아프다’ 그리고 ‘쑹쑹 쑤신다’로, 신장의 통증은 ‘자근자근 아프다’와 ‘쿵쿵 쑤신다’로, 방광의 통증은 ‘쥐어짜는 것 같이 아프다’로 개괄적으로 구분하였다(Lee 등, 1984). Lee과 Kim(2003)의 연구에서 관절염 환자는 ‘뜨끔하다’, ‘시큰거리다’, ‘육신육신하다’, ‘누르듯이 아프다’, ‘땅긴다’, ‘노곤하게 아프다’, ‘거북하다’, ‘짜증스럽게 아프

다’, ‘뻑적지근하다’, 그리고 ‘만지면 아프다’로 총 10개의 통증 표현 어휘를 주로 사용하였다(Lee과 Kim, 2003). Choi 등(2003)은 암 환자의 근육성 통증 표현 어휘는 ‘쑤시다’, ‘결리다’, ‘빠개지듯 아프다’, ‘자르다’로, 내장성 통증은 ‘빠근하다’, ‘쑤시다’, ‘쓰리다’, ‘뒤틀리다’로, 신경성 통증은 ‘저리다’, ‘찌릿찌릿하다’, ‘화끈거리다’, ‘뻗치다’ 등의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등, 2003).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통증 표현 어휘 중 ‘우리하게 아프다’나 ‘간죽간죽 아프다’와 같은 어휘는 방언이나 표준화되지 않은 어휘이며, ‘누르듯이 아프다’는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현재의 통증을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주관적인 환자의 통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는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도표척도(graphic rating scale), 숫자척도(numerical scale), 그리고 단순서술척도(simple descriptive scale)가 있다. 이러한 도구는 통증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며, 민감한 측정도구이지만, 통증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통증의 감각적,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제한되어 있어 단일 개념으로 통증을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McDonald과 Weiskopf, 2001).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통증 평가 도구인 McGill Pain Questionnaire (MPQ)는 통증을 감각적, 정의적 그리고 평가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Melzack, 1975). 그러나 통증은 문화와 환경에 따라 고유의 언어로 표현되므로 영어로 구성된 도구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어휘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통증 표현 어휘를 정리한 국어통증척도가 개발되었으며(Lee과 Song, 1983), 국어통증척도는 10개의 감각영역, 6개의 정의영역, 그리고 4개의 기타 영역을 표현하는 총 91개의 어휘로 만들어졌다. 또한 좀 더 간편하고, 쉽게 통증 어휘를 평가하기 위해 20개의 어휘로 구성된 단순형 국어통증척도도 개발되었다(Lee과 Choi, 1988).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어휘들은 질병의 상태나 부위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흔히 표현되는 어휘들로 특정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통증 부위가 다른 환

자들은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통증을 표현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Lee과 Song, 1987), 또한 국어통증척도와 단순형 국어통증척도의 경우 한국어로 제작되어 한국인에게 적용이 가능하나 분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급성통증,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사용이 어렵다(Lee, 1989). Bailey과 Davidson(1976)은 Melsack과 Torgerson(1971)이 분류한 통증 표현 어휘들이 통증 강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93명의 간호학과 학생과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Dallenbach에 의해 분류된 통증 표현 어휘에서 뽑은 39개의 어휘를 나열한 후 5등급 척도를 통한 각 단어의 조사에서 13개의 어휘가 높은 통증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왔으며, 그중 10개가 정의영역과 평가영역에 속한 어휘들로 비교적 일치성이 높다고 하였다.

다양한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많이 상대하는 물리치료에서 환자에 대한 초기 대면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사의 정확한 이해를 동반한 통증 평가이며, 통증은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통증의 존재, 특성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통증 평가의 일반적인 원칙은 환자의 통증 호소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Pasero과 McCaffery, 1999). 그러나 질환이나 부위에 따라 환자마다 다른 통증 표현을 사용하므로 통증 평가는 물리치료학에서 주요한 탐구 영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통증 어휘 척도는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되어 온 척도이며,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 중 물리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물리치료사들은 종종 환자들이 겪는 통증에 대해 정의된 어휘와 표현이 한정되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적 관점에서 통증 어휘를 근육, 신경 그리고 관절 기원의 통증으로 구분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환자의 어휘에 따른 통증 강도와 통증 부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주관적 통증 표현을 객관화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의료 관련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건계통학과 학생 170명, 전문가 36명, 그리고 일반인 43명이었으며, 총 249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실험 방법

설문지 작성에 앞서 총 200개의 통증 표현 어휘를 조사하였다. 200개의 통증 표현 어휘 중 의미가 중복되거나, 통증 표현과 다소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는 117개의 어휘는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총 83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통증 어휘는 국어사전을 통해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표준어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27개는 배제한 후 총 56개 통증 어휘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표 1). 설문지에는 인사말과 연구의 목적, 설문지 작성 요령을 기재하였으며, 예시를 통해 설문지 작성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최종 선정된 56개의 통증 어휘가 근육, 신경 혹은 관절 중 어떠한 종류의 통증을 의미한다고 생각되는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근육, 신경 및 관절 이외에 다른 구조를 추가하지 않은 것은 임상 물리치료 범주에서 이 세 구조가 가장 빈번히 통증을 호소하는 원인 구조이고, 기타 항목 추가 시 통증 종류에 대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정된 통증 표현 어휘가 나타내는 통증 강도를 VAS를 통해 표시(√)하도록 하였다. VAS는 통증 측정 도구로 간단한 구조, 편리한 사용법, 통계적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평면의 100mm 직선에 통증의 강도를 피실험자가 직접 표시하여 평가하는 것이다(Huskisson, 1983). 0mm는 “통증 없음”이며, 100mm에 가까울수록 “심한 통증”을 나타내어 길이가 길어질수록 통증의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된 통증 측정 도구이다. 설문지는 총 249부를 배부하였으

며, 이 중 247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9.2%). 회수된 설문지 중 항목 누락이나 표기오류 등의 이유로 87부는 통계에서 제외하고, 총 160부를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 중 통증 어휘에 따른 통증 강도는 Excel 2010(Microsoft Utd. USA)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통증 종류는 SPSS Ver. 12.0k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근육성 통증

근육성 통증은 ‘땅기다’가 98.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몽치다’, ‘무지근하다’, ‘몽근하다’, ‘팽팽하다’, ‘결리다’, ‘빠근하다’, ‘쥐어짜다’, ‘찢어지다’, ‘터지다’, 그리고 ‘꼬집히다’ 순으로 통증 어휘 중 근육성 통증으로 응답되었다(그림 1). 근육성 통증 어휘 중 통증 강도는 ‘찢어지다’가 5.7점으로 가장 높았

표 1. 일반적 표현에 대한 표준화 어휘 변환

일반적 표현	표준화 어휘	일반적 표현	표준화 어휘	일반적 표현	표준화 어휘
갈라진 듯하다	갈라지다	불로 지진 듯하다	지지다	짹짹 뻗친다	뻗치다
결리다	결리다	비틀린다	비틀리다	찌릿하다	찌릿하다
빠가 깎이는 듯하다	깎이다	빠지는 듯하다	빠지다	찝히는 듯하다	집히다
깨질 것 같다	깨지다	빠근하다	빠근하다	찢어지는 것 같다	찢어지다
꼬집는 것 같다	꼬집히다	뻣뻣하다	뻣뻣하다	칼로 베인 것 같다	베이다
끊어질 것 같다	끊어지다	삐그덕거린다	삐가닥대다	타들어 간다	타다
돌로 갈리는 듯하다	갈리다	손톱으로 긁힌 듯하다	긁히다	터질 듯하다	터지다
둔하다	둔하다	송곳이 찌르는 것 같다	찌르다	팔다리가 잘린 것 같다	잘리다
따끔 거린다	따끔거리다	얼얼하다	얼얼하다	팽팽하다	팽팽하다
땡긴다	땡기다	오그라진다	오그라지다	저린다	저리다
뚫리는 듯하다	뚫리다	오싹하다	오싹하다	화끈거린다	화끈거리다
몸이 부서질 듯하다	부서지다	육신거리다	육신거리다	후벼판다	후비다
무디다	무디다	울린다	울리다	시리다	시리다
묵지근하다	무지근하다	으스러질 듯하다	으스러지다	시큰하다	시큰하다
몽근하다	몽근하다	전기에 감전 된 것 같다	감전되다	싸하다	싸하다
몽친다	몽치다	찢다	조이다	쑤신다	쑤시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꿈틀거리다	쥐어짜는 것 같다	쥐어짜다	쓰라리다	쓰라리다
벌에 쏘인 듯하다	쏘다	짓눌리는 것 같다	짓누르다	아리다	아리다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	부딪히다	쪼개지는 듯하다	쪼개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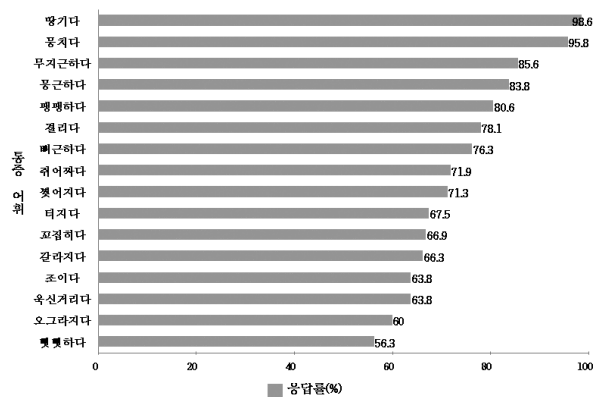


그림 1. 근육성 통증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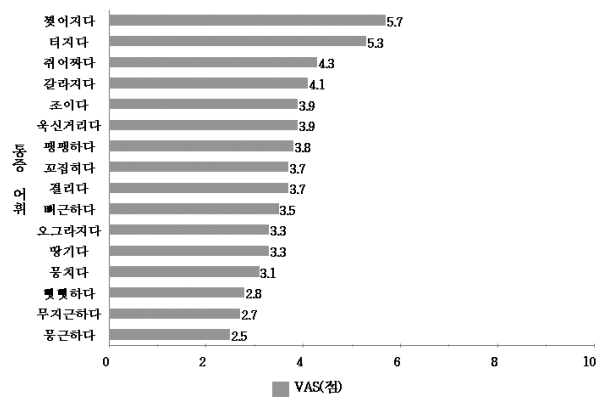


그림 2. 근육성 통증 강도

으며, ‘터지다’, ‘쥐어짜다’, ‘갈라지다’, ‘조이다’, ‘육신거리다’, ‘팽팽하다’, ‘꼬집히다’, ‘결리다’, 그리고 ‘빠근하다’ 순으로 높은 통증 강도를 나타내는 통증 어휘였다(그림 2).

2. 신경성 통증

신경성 통증은 ‘찌릿하다’가 90.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감전되다’, ‘꿈틀거리다’, ‘찌르다’, ‘타다’, ‘지지다’, ‘따끔거리다’, ‘씩다’, ‘긁히다’, 그리고 ‘오싹하다’ 순으로 통증 어휘 중 신경성 통증으로 응답되었다(그림 3). 신경성 통증 어휘 중 통증 강도는 ‘타다’가 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지다’, ‘감전되다’, ‘화끈거리다’, ‘찌르다’, ‘찌릿하다’, ‘뺨치다’, ‘씩다’, ‘긁히다’, 그리고 ‘따끔거리다’, 순으로 높은 통증 강도를 나타내는 통증 어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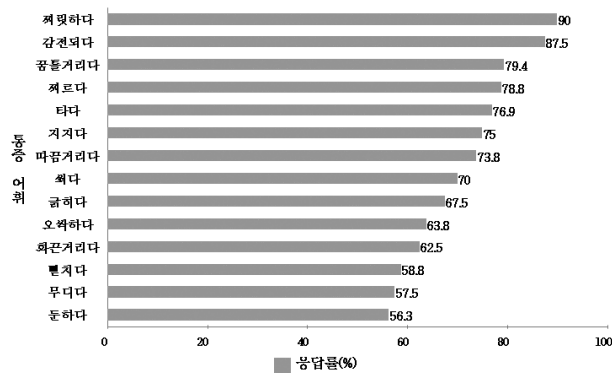


그림 3. 신경성 통증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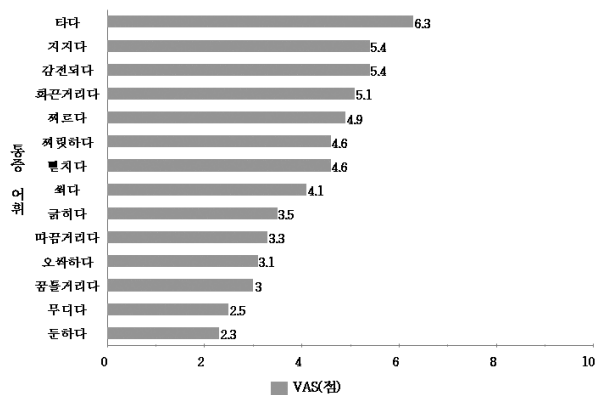


그림 4. 신경성 통증 강도

3. 관절성 통증

관절성 통증은 ‘빠가닥대다’가 90.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깎이다’, ‘빠지다’, ‘으스러지다’, ‘갈리다’, ‘깨지다’, ‘시리다’, ‘쪼개지다’, ‘부서지다’, 그리고 ‘시큰하다’ 순으로 통증 어휘 중 관절성 통증으로 응답되었다(그림 5). 관절성 통증 어휘 중 통증 강도는 ‘부서지다’가 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깎이다’, ‘깨지다’, ‘갈리다’, ‘쪼개지다’, ‘으스러지다’, ‘뚫리다’, ‘빠지다’, ‘비틀리다’, 그리고 ‘시리다’ 순으로 높은 통증 강도를 나타내는 통증 어휘였다(그림 6).

4. 통증 어휘 분포

통증 어휘의 통증 종류에 따른 분포는 그림 7과 같다. ‘끓어지다’, ‘뚫리다’, ‘올리다’, 그리고 ‘쪼개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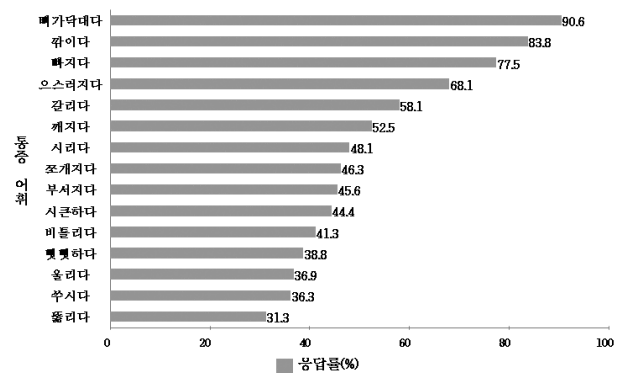


그림 5. 관절성 통증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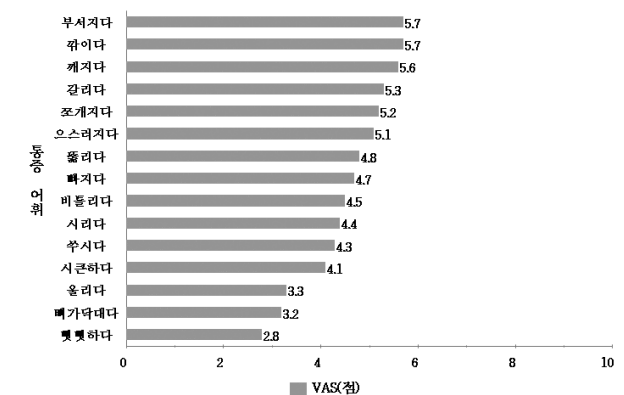


그림 6. 관절성 통증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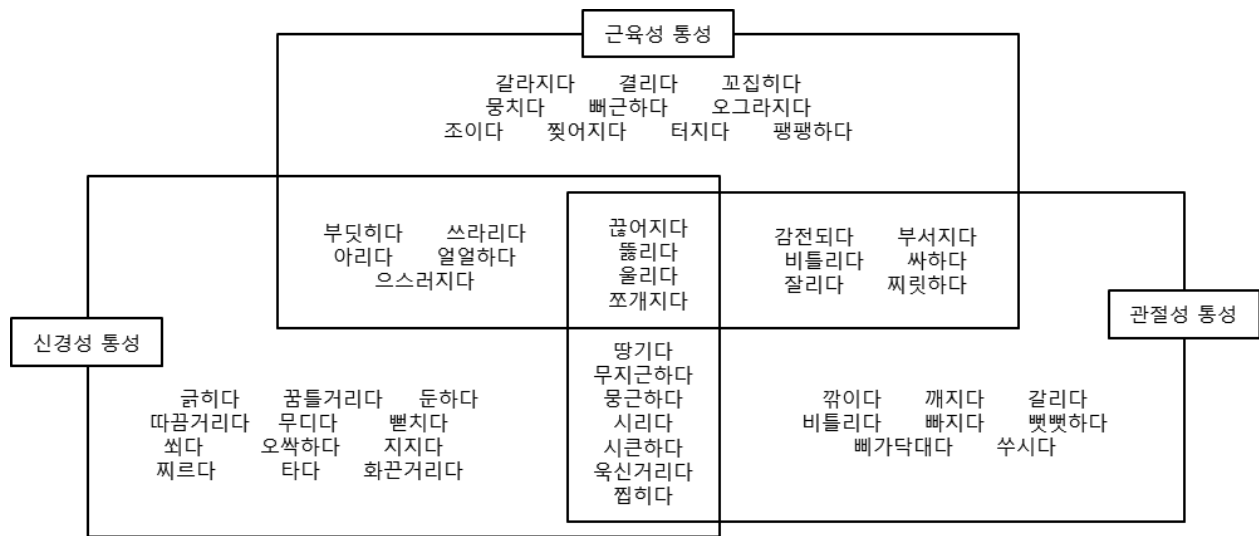


그림 7. 통증 어휘 분포

는 근육성, 신경성 및 관절성 통증 모두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통증 어휘였으며, ‘부딪히다’, ‘쓰라리다’, ‘아리다’, ‘얼얼하다’ 그리고 ‘으스러지다’는 근육성 통증과 신경성 통증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감전되다’, ‘부서지다’, ‘비틀리다’, ‘싸하다’, ‘잘리다’ 그리고 ‘찌릿하다’는 근육성 통증과 관절성 통증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고, ‘망기다’, ‘무지근하다’, ‘뭉근하다’, ‘시리다’, ‘시큰하다’, ‘육신거리다’ 그리고 ‘찝히다’는 신경성 통증과 관절성 통증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통증 어휘였다(그림 7).

IV. 논 의

실질적이나 잠재적 조직 손상으로 일어나는 통증은 방어적 근수축을 일으켜 몸을 움추리거나 고정시킨다. 우리말 ‘아프다’라는 어휘는 ‘몸의 어느 부분이 다치거나 자극을 받아 괴로움을 느낀다’라는 뜻도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복잡한 문제로 생각을 하기 어렵거나 괴로운 상태’와 같이 감정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통증은 주관적 문제이므로 통증을 느끼는 사람에 의해 정의되며, 통증에 대한 환자의 표현은 통증 상태에 대한 가장 믿을만한 지표로 간주되므로 통증 평가에 있어서 환자가 표현하는 어휘들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Hyun과 Park, 2000). 그리고 통증은 통증 대상의 심리 상태나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므로 통증에 대한 연구 시 신체적 통증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통증을 포함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증 어휘는 사는 지역에 따라 사용 빈도가 차이가 나므로 어휘의 문화적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증 표현 어휘 중 ‘육신 육신하다’는 지방 사람들의 표현 빈도가 높았으며, ‘쿡쿡 쑤신다’는 서울 지역 사람들의 표현 빈도가 높았다(Lee과 Kim, 2003).

통증의 성격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자의 통증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므로 통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통증 평가는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병리적 통증은 체성 통증, 내장성 통증, 그리고 신경성 통증으로 나뉘지만 물리치료적 관점에서는 체성 통증을 근육성 통증과 관절성 통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환자의 통증 평가에 효과적일 것이다. 다양한 근육뼈대계와 신경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하는 물리치료사가 환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통증에 대한 비슷한 통증 어휘를 알아두면 통증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통증 표현을 조사하여 물리치료사들과 환자들의 의사소통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통증 표현에 따른 통증 종류와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육성 통증은 ‘땡기다’, ‘뭉치다’, ‘무지근하다’, ‘뭉근하다’, ‘팽팽하다’, ‘결리다’, ‘뺨근하다’, ‘쥐어짜다’, ‘찢어지다’, ‘터지다’ 등의 표현 어휘가 높은 빈도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신경성 통증은 ‘찌릿하다’, ‘감전되다’, ‘꿈틀거리다’, ‘찌르다’, ‘타다’, ‘지지다’, ‘따끔거리다’, ‘썩다’, ‘굽히다’, ‘오싹하다’ 등의 표현 어휘가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관절성 통증은 ‘뺨가닥대다’, ‘깎이다’, ‘빠지다’, ‘으스러지다’, ‘갈리다’, ‘깨지다’, ‘시리다’, ‘쪼개지다’, ‘부서지다’, ‘시큰하다’ 등의 표현 어휘가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통증 표현 어휘 중 ‘끓어지다’, ‘뚱리다’, ‘올리다’, ‘쪼개지다’는 근육, 신경, 관절성 통증 표현 어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Choi 등(2003)은 암성 환자의 통증 표현 어휘 중 체성 통증은 ‘쑤시다’, ‘결리다’, ‘뺨개지는 듯 아프다’, ‘찌르다’ 등의 어휘가 많이 사용되었고, 신경성 통증은 ‘저리다’, ‘찌릿찌릿하다’, ‘화끈거리다’, ‘뺨치다’ 등의 어휘가 많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쑤시다’는 관절성 통증을 표현하는 통증 어휘였으며, ‘결리다’는 근육성 통증, 그리고 ‘찌르다’, ‘저리다’, ‘찌릿하다’, ‘화끈거리다’, ‘뺨치다’는 신경성 통증을 표현하는 통증 어휘로 나타났다. 관절성 통증과 근육성 통증은 체성 통증의 범주로 볼 수 있어 ‘쑤시다’, ‘결리다’의 통증 어휘와 신경성 통증을 표현하는 ‘화끈거리다’, ‘뺨치다’, ‘찌릿찌릿하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찌르다’라는 통증 어휘는 본 연구에서는 신경성 통증으로 조사됐고, 선행연구에서는 체성 통증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Cheon과 Choi(2008)는 심장동맥질환 환자의 흉통 표현 어휘 중 ‘뺨근하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휘라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뺨근하다’는 근육성 통증을 나타내는 어휘로 같은 어휘라도 질환의 유무 및 종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Jang(2004)은 수술 후 통증 환자의 통증 표현 어휘 중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파요’, ‘끓어질 것처럼 아파요’, ‘쥐어짜듯이 아파요’, ‘콧콧 찌르듯이 아파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요’, ‘쓰리게 아파요’ 등의 어휘

가 높은 통증 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설문 조사에서 사용된 어휘가 대부분 짐작이나 추정을 나타내는 ‘뭉’이라는 의존명사를 사용하여 표준화 어휘 작업을 수행한 본 연구와 직접적 비교는 어려웠다. 선행연구의 통증 어휘를 표준화하여 비교한다면 ‘쥐어짜다’와 ‘찌르다’는 본 연구에서도 높은 통증 강도를 나타냈지만 ‘도려내다’, ‘끓어지다’, ‘쓰라리다’라는 어휘는 설문 조사의 선택 항목이었지만 높은 통증을 호소하는 어휘로 조사되지 않았다. 이처럼 실제적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와 통증 호소를 받아들이는 건강관련 학과의 학생이나 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증 환자를 접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통증 어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건강관련 학과의 학생과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체 구조에 따라 지각하고 있는 통증 표현 어휘와 통증 강도를 조사하여 임상에서 환자에 대한 통증 평가 시 통증 파악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 환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통증 표현의 이해도가 다양하므로 통증 종류와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 표현 어휘를 조사하고, 설문 항목의 다양화를 통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건강관련 학과의 학생과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60부의 설문지를 통해 통증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에 따른 통증 종류와 강도를 조사하였다. 근육성 통증 어휘는 ‘땡기다’, ‘뭉치다’, ‘무지근하다’, ‘뭉근하다’, ‘팽팽하다’ 등이었으며, 신경성 통증 어휘는 ‘찌릿하다’, ‘감전되다’, ‘꿈틀거리다’, ‘찌르다’, ‘타다’였고, 관절성 통증 어휘는 ‘뺨가닥대다’, ‘깎이다’, ‘빠지다’, ‘으스러지다’, ‘갈리다’의 어휘가 응답률이 높았다. 근육성 통증 어휘의 강도는 ‘찢어지다’, ‘터지

다, ‘쥐어짜다’, ‘조이다’, ‘육신거리다’ 등이 높았으며, 신경성 통증은 ‘타다’, ‘지지다’, ‘감전되다’, ‘화끈거리다’, ‘찌르다’가 높은 강도의 어휘였고, 관절성 통증은 ‘부서지다’, ‘깎이다’, ‘깨지다’, ‘갈리다’, ‘쪼개지다’가 높았다. 통증 환자에 대한 치료적 중재를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제공하는 물리치료사가 통증 종류와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휘를 환자 평가 전 인지한다면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iley CA, Davidson PO. The language of pain: intensity. *Pain*. 1976;2(3):319-24.
- Cheon SH, Choi MA. Quality of chest pain according to causal diseases and description of chest pain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s in emergency departments. *J Kor Clin Nurs Res*. 2008; 14(3):61-72.
- Choi YS, Lee JY, Park JN et 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valuation of korean cancer pain assessment tool (K-CPAT). *Kor J Hosp Palliat Care*. 2003;6(2):152-63.
- Galloway S, Turner L. Pain assessment in older adults who are cognitively impaired. *J Gerontol Nurs*. 1999;25(7):34.
- Ho K, Spence J, Murphy MF. Review of pain-measurement tools. *Ann Emerg Med*. 1996;27(4):427-32.
- Huskisson E. Visual analogue scales. Pain measurement and assessment. New York: Raven Press, 1983.
- Hyun J, Park KS. Clinical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on pain management. *Kor J Adult Nurs*. 2000;12(3):369-83.
- Jang SY. Study on the verbal expressions and intensity of postoperative pain – In the area of obstetric and gynecologic operation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2004.
- Lee CH.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ment of a pain questionnaire. *J Kor Soc Phys Ther*. 1989;1(1): 63-72.
- Lee EO, Choi JM. A study f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form korean pain rating scale. *Seoul J Nurs*. 1988;3(1):73-82.
- Lee EO, Kim JI. Pilot study for scale development for measurement of arthritic pain using pain terms. *J Rheumatol Health*. 2003;10(1):44-53.
- Lee EO, Song MS. Development of korean pain rating scale. *Seoul J Nurs*. 1987;2(1):27-40.
- Lee EO, Song MS. A study for development of a korean pain measurement tool(Ⅱ). A study for testing ranks of words in each subclass of a korean pain measurement tool. *J Kor Acad Nurs*. 1983;13(3): 106-18.
- Lee EO, Yun SN, Song MS. A study for development of ratio beale measuring pain using korean pain terms. *J Kor Acad Nurs*. 1984;14(2):93-111.
- McDonald DD, Weiskopf CS. Adult patients' post-operative pain descriptions and responses to the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 *Clin Nurs Res*. 2001;10(4):442-52.
- Melzack R. The McGill Pain Questionnaire: major properties and scoring methods. *Pain*. 1975;1(3):277-99.
- Melzock R, Torgersor-ii W. On the language of pain. *Anesthesiology*. 1971;34(1):50-59.
- Pasero CL, McCaffery M. *Pain: Clinical Manual*. Mosby Incorporated, 1999.
- 논문접수일(Date Received) : 2015년 4월 13일
논문수정일(Date Revised) : 2015년 4월 23일
논문게재승인일(Date Accepted) : 2015년 4월 28일